

[성서학 연구논문]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
- 누가복음의 '백성' (λαός)에 관한 연구

장성민 <<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과정 / 신약학

성서마당은 성서학 전공자들의 연구 동기를 진작시키고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매 호마다 구약과 신약 전공자들의 연구 논문을 번갈아 게재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성서학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

- 누가복음의 '백성' (λαός)에 관한 연구

장성민 <<<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과정 / 신약학

I. 논문의 목적과 범위

일찍이 텐네힐(Robert C. Tannehill)은 누가복음의 서사적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여러 등장인물들을 서사적 흐름에 따라 분석하였다.¹⁾ 이 책의 해당 장 제목이 이미 분명히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예수와 백성 또는 무리' ("Jesus the Crowd or People")라는 장에서 텐네힐은 백성(λαός)과 무리(ὄχλος, ὄχλοι)를 '동일한 범주'에 귀속시키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누가복음 전체의 흐름을 개괄하고 있다.²⁾ 텐네힐에 따르면 누가복음에서 '백성 또는 무리'는 처음에는 예수에게 매우 호의적인 인물로 제시되다가 결국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올바르게 따르지 못하는 자들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텐네힐은 서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8장 10절에서 제시되는 구분,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1) Robert C. Tannehill, *The Narrative Unity of Luke-Acts: A Literary Interpretation*, vol. 1, *The Gospel according to Luke*(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6).

2) Robert C. Tannehill, *The Narrative Unity of Luke-Acts*, 143-66.

허락된 자들' 과 그렇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 사이의 구분이 향후 진행 되는 서사를 지배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성전에서의 가르침이 제시되는 단락(19:11-21:38)에서 백성과 종교적 지도자들 사이의 대조적인 반응이 다시 묘사되긴 하지만, 백성들이 결정적인 시간을 인지하고 회개하거나 제자가 된다고 그러지지는 않는다고 분석한다. 오히려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 '알지 못한 상태' (행 3:17)에서 메시아적 왕국의 평화를 거절하는 자들로 묘사되며, 결국 이어지는 22장 이하의 단락에서 '백성의 장로들', 십자가 처형 현장의 백성들(22:66; 23:27, 35, 48) 등의 표현을 통해 백성들 역시 예수의 적대자들임이 암시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필자는 누가 서사에서 '백성' (λαός)이라는 범주는 '무리' (ὄχλος)라는 범주와 구별되어야 하며, '백성'이라는 등장인물만을 별도로 고려할 때, '백성'은 누가 서사에서 텐넬이 분석하는 발전 과정과는 다른 모습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른 어떤 등장인물보다 '백성'이라는 범주가 누가 서사에 내재된 저자가 독자에게 본문 읽기 과정에서 '동일시' (identification)를 요구하는 중요한 범주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누가 서사의 구성' (the Composition of the Lukan narrative)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누가복음에서 묘사되고 있는 '백성'이라는 캐릭터를 분석적으로 제시해 보려는 것이다. 이로써 본고는 누가 서사에서 '백성'이라는 캐릭터가 누적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내재된 저자와 독자 사이의 암묵적인 대화에서 일정한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을 논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직접적인 권고나 명령이 아니라, '모방과 회피'라는 독자의 내적 결단을 자극하는 일종의 '무언의 대화'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누가 서사를 통해 '백성'이라는 등장인물의 특성을 읽어 내기 위한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본 후, '백성'이 언급되고 있는 단락들을 중심으로 '백성'의 캐릭터를 분석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를 위한 예비적인 고찰들

가. 연구 방법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제안되기 시작한 편집비평(redaction criticism)은 이전의 방법론적 전제들과 절차들이 가진 엄격함으로 인해 정체되어 있던 복음서 연구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편집비평은 복음서와 그 복음서의 창작 이면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을 열어 주는 열쇠를 쥐어 주는 듯 했다. 복음서 연구자들이 해야 할 일이란 복음서 저자가 사용한 자료들로부터 복음서 저자의 편집적인 손길을 분별해 내고, 그렇게 추출된 복음서 저자의 편집적 부분들로부터 그의 신학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서 저자의 편집 의도나 편집 방식에 의거하여 복음서의 구성 및 목적과 관련된 일체의 질문들에 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편집비평에 대한 이러한 과신은 복음서 저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편집비평이야말로 ‘판도라의 상자를 연 꼴’이 되었다는 비판적 반성으로 귀결되고 말았다.³⁾ 일단 복음서 저자의 자유와 창의성을 인정하게 되면, 복음서 저자가 수용한 전승 자료들의 내용을 활

3) 이는 마가복음에 대한 편집비평적 연구의 인위적 성격을 지적한 위든(T. Weeden)의 표현을 빌려 쓴 것이다. Theodore J. Weeden, Sr, *Mark: Traditions in Conflict*(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1), 2. 아울러 텐네힐의 다음과 같은 평가도 참조하라: “편집 비평은 개별 복음서의 구성에 대한 연구가 가지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 (편집 비평의) 일차적인 관심은 종종 복음서 기자가 자신의 원 자료들을 활용하면서 추가한 첨가들이나 변형들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곤 한다. 더군다나, 원 자료에 대한 첨가들이나 변형들은 그것 자체로는 저자의 관심이나 강조점을 드러내 주지 않는다. 어떤 작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논리적으로 그 작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기원에 대한 질문과 별개의 것이다.” Robert C. Tannehill, “The Disciples in Mark: The Function of a Narrative Role,” *Journal of Religion*, vol 57/4 (1977), 386.

용하거나 결합시키는 데 있어서, 그리고 자기에게 부여된 자유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선택지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편집비평은 주어진 본문에서 도출해 낸 편집구들에 기초하여 복음서 저자의 신학적 관심을 유추하고 다시 거기에 기초하여 본문을 읽게 되는 순환논법의 오류에 빠질 위험 이외에도, 복음서 저자의 신학적 관심을 어떻게 상정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독법을 보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⁴⁾ 무엇보다 편집비평의 한계는 복음서의 ‘플롯 전개’를 무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복음서의 서사와 극적 움직임의 그 어떤 의미도 독자들에게 전해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 독자들은 종종 그것이 무엇이든 모종의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일체의 감각을 상실해 버리게 된다.⁵⁾

이에 따라 복음서 이야기의 서사와 극적 움직임에 유의하면서 복음서 저자의 서사적 창의성이 더욱 강조되어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문학 비평적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문학 비평은 상대적으로 복음서와 관련한 다양한 공동체적·문화적·종교적·사회적·역사적 제(諸) 정황에 소홀하게 되었고, 방법론적으로도 체계적인 통일성(systemic integrity)이나 철학적 기반들(philosophical underpinnings)에 견고하게 터하지 못한

4) 복음서 저자의 신학적 관심을 어떻게 상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독법으로 본문을 읽게 되는 이러한 상황은 교부시대나 중세시대에 통용되던 알레고리 해석을 생각나게 한다.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읽는 것은 본문 이면에 숨겨진 의미들, 즉 은유적으로 암시되어 있지만 명시적으로는 표현되어 있지 않는 의미들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다.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공동체의 상황이나 복음서 저자의 신학적 의도를 읽어 내려가는 것은 역사적 재구성의 작업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알레고리적인 읽기의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Janice Capel Anderson and Stephen D. Moore, eds. *Mark & Method: New Approaches in Biblical Studies*(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8), 9.

5) 이러한 비판은 W. D. Davies and Dale C. Allison,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tthew*, vol. 1: *Introduction and Commentary on Matthew I-VII*(Edinburgh: T&T Clark, 1988)에 대한 킹스베리(Jack Dean Kingsbury)의 논평에 잘 나타나 있다. J. D. Kingsbury, “Review of Davies and Allison,”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0(1991): 344-46.

채 다양한 해석학적 모델들의 단편과 조각들을 빌려서 얼기설기 구축한 절충주의(eclecticism)의 모습을 보여 주곤 했다.⁶⁾ 다르(John A. Darr)에 따르면 이와 같은 애호가적인 태도(dilettantism)⁷⁾ 이외에도 문학비평이 직면한 또 하나의 난점은 이른바 본문이 가진 “환경적 치환”(environmental displacement)이라는 정황이다.⁸⁾ 해석되는 과거의 본문(예를 들어 복음서)은 1세기 그레코-로만 시대의 서사라는 사실로 인해 해석자로부터 연대 기적·문화적 ‘거리’(distance)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종래의 문학비평은 이러한 ‘거리’를 좁히려는 역사적 노력을 소홀히 여겨 왔으며, 이로 인해 현대의 문학비평 방법들을 고대 문헌에 적용함으로써 시대착오적인 읽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따라서 본문을 읽어 나감에 있어서 본문의 문학적 서술 과정을 중시하면서 동시에 본문이 가진 ‘거리’를 좁히려는 역사적 노력을 병행하는 것은 균형 잡힌 읽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대의 문학 비평적인 읽기 방식을 본문에 적용하기보다는, 당대의 문화적 특징들을 고려하여 해석자가 구축한 1세기 독자들을 제시하

6) John A. Darr, *On Character Building: The Reader and the Rhetoric of Characterization in Luke-Acts*(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2), 13. 일반 문학비평이 1930-40년대를 거치면서 이른바 ‘신비평’(New Criticism)의 도래로 말미암아 ‘저자의 의도’(author’s intention)는 해석 과정과 별개라고 선언하고,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구조주의(structuralism)와 해체(deconstruction)에 의해 대체되어 갔다는 점을 기억할 때, 지난 반세기 동안 복음서의 문학비평은 저자의 서사적 창의성을 극도로 강조하면서 저자에게 훨씬 더 예리한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점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무어(Stephen D. Moore)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성서학과 문학은 평행선에서 반대방향으로 질주하는 두 대의 기차와 같았다”고 묘사한다. Janice Capel Anderson and Stephen D. Moore, eds. *Mark & Method*, 10.

7) “만일 우리가 성경에 대한 문학 비평을 수행함에 있어서 영구적으로 애호가적인 상태(dilettantes)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면 비평적 이론들에 대한 지난한 독서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Stephen D. Moore, *Literary Criticism and the Gospels: Theoretical Challenge*(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9), 178. John A. Darr, *On Character Building*, “Introduction” 각주 3에서 재인용.

8) John A. Darr, *On Character Building*, 13.

고 아울러 1세기 독자들의 본문 읽기 방법에 따라 누가복음 서사를 ‘저자와 독자 사이의 암묵적인 대화’로 규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해석자가 구축한 1세기 독자들에게 대해서는 문화적 연구와 역사적 연구의 균형을 강조한 다르(John A. Darr)의 제안을 수용하고, 1세기 독자들의 본문 읽기 방식에 있어서는 위든(Theodore L. Weeden)의 제안을 수용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나. 해석자가 구축한 1세기 독자들

다르(John A. Darr)는 역사적 본문의 실제 독자를 상정함에 있어서 해석자는 본문 읽기 과정을 통해서 해석자 자신의 개인적, 문화적 특성들을 독자에게 스며들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본문 자체로부터의 추론 및 당대의 문화적 산물들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다소 불완전할지언정) 해석자와는 시공간적인 차이를 가지는 독자를 분별해 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⁹⁾ 당대의 문화적 산물들에 기초하여 다루는 우선 독자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누가복음의] 독자는 1세기 후반 지중해 세계의 문화적으로 소양 있는 인물로서 당대의 문화적 문법들과 사회 규범들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에 의거하여 삶을 영위하였다. 그(녀)는 로마제국과 관련한 기초적인 역사적, 정치적, 지리적, 인종적 사실들을 알고 있었으며, 제국이 어떻게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기능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독자는 또한 당대의 주요 도시들과 민족들에 대해서도 일종의 상투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다. 아테네는 철학자들의 도시이며, 예루살렘은 최근에 일어난 폭동과 그에 따른 멸망 이전에는 유대인들의 수도였다는 것들 말이다. [독자들과 관련하여] 이러한 유형의 일반적이고도 공공연하며

9) John A. Darr, *On Character Building*, 27.

전통적인 지식이 전제될 수 있다.¹⁰⁾

다르는 이러한 일반적인 사항들과 더불어 누가복음 읽기라는 목적을 고려할 때 보다 흥미로운 사항을 제안한다. 그것은 독자들이 당시 널리 읽히던 그레코-로만 문학에 익숙했을 것이라는 점이다.¹¹⁾ 이러한 점은 누가복음을 당대의 문학 작품들과 대조해 볼 때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누가가 ‘식자들’ (*literati*)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대중적인 작품들에 익숙했던 하층 또는 중간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는 신약 성경 서사들 가운데 가장 문학성이 뛰어나지만, 여전히 ‘대중 문학’ (*popular literature*)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²⁾

다르는 누가의 독자가 1세기 후반 그레코-로만의 일반 독자들과 가장 분명하게 구별되는 점으로 헬라어로 기록된 유대인의 성경(LXX)에 대한 독자들의 친숙한 지식을 제안한다. 누가-행전은 칠십인역의 언어와 심상, 배경과 풍미가 곳곳에 스며 있다는 것이다.¹³⁾ 나아가 누가-행전을 어떤 방식으로든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칠십인역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유대인이 아닌 자들은 유대인들의 성경에 익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누가-행전은 광범위한 유대 전승 흐름

10) John A. Darr, *On Character Building*, 같은 곳.

11) 초대교회 교부들이 누가복음의 문학적 탁월성을 묘사하는 여러 용어들이 당대 수사학에서 사용되던 용어들과 병행을 이룬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누가복음의 독자뿐 아니라, 저자 누가 역시 당대 수사학에 매우 정통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팔슨스 (Mikeal C. Parsons)의 주장도 이러한 제안을 지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Mikeal C. Parsons, *Luke: Storyteller, Interpreter, Evangelist*(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Inc., 2007), 15-39.

12) John A. Darr, *On Character Building*, 28; D. E. Aune, *The New Testament in Its Literary Environment*(Philadelphia: Westminster, 1987), 77.

13) John A. Darr, *On Character Building*, 28. 예를 들어 직접 인용, 문체 모방, 인물 유형의 차용, 배경, 다양한 암시들이 누가-행전과 칠십인역 사이의 문학적 연관성을 보여 주는 것들이다.

내에 있었지만 고도로 헬라화된 청중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¹⁴⁾ 필자는 누가복음 독자들에게 대한 이러한 다르의 논의는 누가복음에서 제시되는 ‘백성’이라는 등장인물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누가복음의 독자들이 “광범위한 유대 전승의 흐름 가운데 있었던 헬라화된 독자들”이라는 점은 누가복음의 독자들이 누가복음 서사 곳곳에 배어 있는 유대적 배경에 의거하여 백성의 용례를 파악할 수 있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래에서 제시되는 문학 작품에 대한 ‘헬라적 독법’과 더불어 1세기 누가복음의 독자들이 누가의 서사를 어떻게 읽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매우 요긴하다고 할 것이다.¹⁵⁾

다. 내재된 저자와 독자와의 암묵적 대화로서의 누가 서사

누가복음의 독자들이 일반적인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문법들을 해독할 소양을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대중 문학에 익숙했을 것이라는 점은 누가복음 서사를 읽는 데 있어서 1세기 그레코-로만 독자들의 읽기 방식을 고려하게 만든다. 1세기를 전후로 한 그레코-로만 문학 교육은 과거의 위대한 문학 작품들에 대한 다소 현학적인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위든(T. J. Weeden)의 설명에 따르면 당대의 독자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문학 작품을 이해하였다.¹⁶⁾

14) John A. Darr, *On Character Building*, 같은 곳.

15) 현대의 문학 비평적인 방법을 누가 서사에 적용하지 않고, 1세기의 역사적 독자들을 상정한 후, 그들이 가진 배경과 독법에 의거하여 누가 서사를 읽는 것은 자연스럽게 ‘1세기 독자의 반응’에 의거한 일종의 독자-반응(Reader-response) 읽기를 포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6) 이어지는 논의는 Theodore J. Weeden, Sr, *Mark: Traditions in Conflict*, 12-15를 주로 참고한 것이며, 위든 역시 이 부분의 논의를 H. I. Marrou, *A History of Education in Antiquity*, trans. George Lamb(New York: Sheed and Ward, 1956)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

우선 학생들에게 작품을 제시하기 전에 문학 교사는 해당 작품의 요약
을 제시하면서 중요한 등장인물들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극적인 설명을 곁
들였다. 대강의 줄거리가 학생들에게 인지되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공부
할 본문을 제시한 후 해당 작품을 “실감나게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
다. 이런 식으로 작품의 내용이 숙지되면 해당 작품에 대한 해석으로 넘
어가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어휘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 저자가 즐겨
쓰는 용어들에 대한 관찰, 등장인물과 사건들에 대한 세심한 조사가 이루
어졌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특히 등장인물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이 요
구되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해당 문학 작품에 대한 ‘평가’ (judgement)가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등장인물의 사상과 행동으로부터 모종의 도덕
적인 원리들이 추정되었다. 이러한 평가에는 고대 작품에 등장하는 영웅
들은 인간의 미덕과 악덕에 대한 일종의 모범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전
제되어 있었다.¹⁷⁾ 그리고 이처럼 등장인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해당 작품
의 목적과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고자 했던 헬라 교육 관행은 로마시대에
도 고스란히 이어졌다.

중요한 점은 저자가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로서 등장인물을
강조하는 관행이 고대 저자들의 작품을 해석하기 위해서만 한정적으로 이
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원리는 문학 창작에도 고스란히 전
용되었다. 예를 들어 당대의 역사가들은 엄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만 관
심을 기울였다기보다는 독자들로 하여금 세계에 대한 ‘선악에 있어서 엄
격한 해석’ (moralistic interpretation)에 이를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도 관심

17) 특히 서사 내에서의 사건들이나 인물들에 대한 내재된 저자의 평가는 저자와 독자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평가는 후에 거부되거나 수정될 관
점이 아니라 내재된 저자의 관점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인 한, 독자들에게 권고되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간접적인 권고는 독자들의 상황과 필요들에 대한 저자의 인
식을 반영할 수도 있다. 저자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독자와 직접 대화하게 되며
동시에 제시되는 캐릭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게 된다. Robert C.
Tannehill, “The Disciples in Mark: The Function of a Narrative Role”, 401.

을 기울였다. 이러한 기술 방식을 고려할 때, 당대의 역사는 덕스러운 삶을 고양하고 타락한 삶을 지양하도록 자극하는 방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역사의 의미에 대한 Livy의 관점에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 모든 독자들이 면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질문들이 존재한다- 삶과 도덕이란 무엇과 같은가? 평화롭건 전쟁 중이건 간에 어떤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정책들에 의해서 제국이 확립되고 확장되어 가는가? 어떻게 도덕이 점점 몰락하여 결국 우리를 오늘의 상황에 이르게 하였는지 주목하여 보라! 역사 연구를 건전하고 유익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 즉 이목을 끄는 유적 위에 새겨진 일체의 경험들이 주는 교훈을 보는 것이다. 이것들로부터 당신은 당신 자신과 당신의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모방해야 하는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들로부터 개념적으로 수치스러운 것과 결과에 있어서 수치스러운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라.¹⁸⁾

누가가 당대의 문학 작품 창작에서 널리 사용되던 방식을 따랐으며, 누가복음의 독자들이 당대의 대중 문학에 익숙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누가 역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며 독자 역시 누구를 모방하고 어떤 것을 피해야 하는지를 고려하면서 누가복음을 읽었을 것이라고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복음은 ‘모방과 회피’라는 틀 속에서 등장인물들을 매개로 진행되는 누가와 독자들과의 ‘간접적인 무언의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8) Titus Livius, *Ab Urbe Condita*, trans. B. O. Foster, Leob Classical Library(London: William Heinemann, 1919), 5-7. Theodore J. Weeden, Sr, *Mark: Traditions in Conflict*, 15에서 재인용하였으며, 강조는 필자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1세기 독자들의 누가복음 읽기와 그에 따른 반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칠십인역(LXX)으로 대변되는 구약성경과 유대교 전승에 익숙했던 자들로서 구약의 사상과 용례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동시에 당대 헬라 문학에 익숙했던 자들로서 ‘모방과 회피’라는 일반적 읽기 방식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백성’과 관련된 누가의 서술이 보여 주는 유대적인 배경¹⁹⁾을 간파하면서 그 배경에 의거하여 ‘백성’이라는 등장인물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특징과 다른 인물(특히 예수)과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모방과 회피’라는 기준에 의거하여 ‘백성’을 평가했을 것이다.

라. ‘백성’이라는 캐릭터가 제시되는 방식

그렇다면 누가복음 서사에서 백성이라는 캐릭터는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제시되는 백성이라는 캐릭터를 어떤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을 누가와 독자들과의 ‘간접적인 무언의 대화’라고 한다면, 이러한 대화에서 누가(또는 내재된 저자)의 관점은 누가복음의 주인공으로 제시되는 예수의 관점과 함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예수와 백성들과의 관계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거기에서 드러나는 백성들에 대한 평가나 묘사가 내재된 저자의 주요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저자가 독자에게 암묵적인 대화를 건넨다는 전제 하에 예수와의 관계에 의거하여 백성들을 평가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백성들과 예수 사이의 관계가 백성들의 행태를 평가하는 일차적인 기준이기는 하지만, 서사가 진행되면서 제시되는 백성들과 이야기에

19) 아래의 ‘백성’에 대한 분석과 논의를 보라.

등장하는 다른 등장인물들과의 관계 역시 간략하게나마 다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텐넬 자신이 이미 마가복음 서사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한 틀인 유사성(similarity)과 대조(contrast), 지지(support)와 반대(opposition)에 입각하여,²⁰⁾ 누가복음 서사에서 예수와 백성들 간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1세기 독자들이 누가복음의 서사를 읽었을 때, ‘백성’이라는 범주가 단순히 중립적인 청중이 아니라 독자들에게 ‘모방과 회피’라는 신앙적 판단을 제안하고 환기시키는 주요한 등장인물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III. 누가 서사에서 백성

가. 탄생 기사에서의 백성(1-2장)

본 단락에서 ‘백성’(λαός)이라는 용어는 1장 10절, 17절, 21절, 68절, 77절, 2장 10절, 31절, 32절에 각 1회씩 총 8회 등장한다. 이 가운데 3회(1:10, 17, 21)는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예고를 듣는 장면에서 언급되고, 2회(1:68, 77)는 세례 요한의 부친 사가랴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에서 언급된다. 그리고 나머지 3회(2:10, 31, 32)는 예수의 탄생과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다.

먼저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예고에서 언급되는 백성이라는 용어 가운데 2회(1:10, 21)는 일반적인 의미의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²¹⁾ 이들은 아마도 사가랴가 저녁 분향을 드리는 동안에 남자와 여인의

20) Robert C. Tannehill, “The Disciples in Mark: The Function of a Narrative Role”, 402.

21)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IX*, The Anchor Bible 28A(New York: Doubleday, 1981), 324.

뜰에 모여 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출 30:7-8; 단 9:21; 행 3:1). 누가의 설명에 따르면 스가라는 분향단을 청결하게 하고 새로운 분향을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홀로 ‘주의 성전에’ (εἰς τὸν ναὸν τοῦ κυρίου, 9절) 들어갔으며, 뜰에서 기다리던 다른 사람들(백성)은 그가 지체하지 않고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백성’ (πάν τὸ πλῆθος τοῦ λαοῦ, 10절)이 밖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음에도²²⁾ 사가라가 예기치 못할 요한의 탄생 예고로 인해 지체함으로써 백성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고,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사가라가 전해들은 탄생 예고의 성취 과정을 주목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즉 본 단락의 10절과 21절에서 제시되는 ‘백성’은 특정 집단으로 규정될 수는 없는 일반 대중을 뜻하지만, 독자들을 대신하여 사가라에게 전해진 예언의 의미와 그것의 성취에 대해 ‘놀라워하는’ (ἐθαύμαζον) 인물로 제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³⁾

본 단락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17절의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κυρίῳ λαὸν κατεσκευασμένοι)이라는 표현 가운데 언급되고 있는 ‘백성’이라는 용어이다. 17절은 15절부터 이어지는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한 설명의 일부인데, 여기에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은 문자적으로 ‘주를 위하여 준비된 백성’라는 뜻으로,²⁴⁾ 16절의 ‘이스라엘 자손’과 병행을 이룬다. 16

22) 이는 누가 특유의 수사적 과장법이다.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IX*, 324.

23) 세례 요한과 예수의 탄생기사에서 θαυμάζω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그것을 보는 자들(이웃/친척[1:63], 목자[2:18], 부모[2:33] 등)의 반응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된다. 무엇보다 4장 22절에서 이 단어는 예수의 이른바 ‘취임 설교’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24) 여격으로 표현된 κυρίῳ는 ‘유익의 여격’(dativus commodi)으로 이해하여 개역개정체의 번역처럼 “주를 위하여”(for the Lord)라고 번역할 수 있다. ‘백성이 주님을 위해 준비되었다’는 말은 ‘준비된’이라는 동작의 목적 또는 관심의 대상이 바로 ‘주님’이라는 뜻이다. F. Blass, A. Debrunner and Robert W. Funk,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 188.

절에 따르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인데, 17절은 이러한 사명의 구체적인 성격을 보다 상세하게 규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²⁵⁾ 그것은 ‘아버지들(즉 조상들의 마음)’(*καρδίας πατέρων*)과 ‘불순종하는 자들’(*ἀπειθεῖς*)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다. 누가 서사에서 ‘아버지’(조상)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로 묘사되며(6:23, 26; 11:47-48), 사회적으로도 로마 제국 내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서 엄하고 완고한 것으로 여겨졌다.²⁶⁾ 17절의 ‘주를 위해 준비된 백성’은 16절의 ‘이스라엘 자손’과 병행을 이룰 뿐 아니라 ‘아버지와 불순종하는 자들’과도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천사의 예언에 따르면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들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서 준비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태어날 것이다. 백성을 돌이켜 준비시키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어지는 서사(3장)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칠십인역 말라기 3장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사명은 하나님의 종말적 구원 약속을 기억시켜 주고, 이러한 예언에 익숙하던 독자들로 하여금 ‘준비된 백성’의 정체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도록 한다.

탄생 기사에서 백성에 대한 두 번째 언급은 세례 요한의 운명에 대한 사가랴의 예언에서 나타난다. 먼저 68절에서 백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돌보심’의 대상이자, 내용적으로 이스라엘과 동일시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그가 돌보시는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라고 달리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돌보셨다’고 번역된 *ἐπεσκέψατο*는 ‘방문하셨다’라는 뜻으로 다양한 형식의 구속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문(창 21:1; 출 4:31; 룿 1:6; 시 79:14; 렘 15:15 등, cf. CD 1.7; T. *Levi*. 4.4;

25) Joel B. Green, *The Gospel of Luke*,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Grand Rapids: Eerdmanns Publishing Company, 1997), 76.

26) Joel B. Green, *The Gospel of Luke*, 76-77. 누가는 여기에서 ‘아버지-자녀’라는 가족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는 칠십인역(말 3:23)을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2장 27, 41, 43절 등에서처럼 가족 관계를 뜻하는 ‘부모’(*οἱ γονεῖς*)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

T. *Jud.* 23.5 등도 참조)을 뜻하는 7P2를 번역하기 위해서 칠십인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다.²⁷⁾ 이어지는 78절에서 이러한 방문의 모티프가 재차 나타나는데(*ἐπισκέψεται ἡμᾶς ἀνατολή ἐξ ὕψους*, 문자적으로는 ‘히늘로부터 오는 여명[씩]이 우리를 방문할 것이다’, 7:16; 행 15:14 참조), 앞선 77절에서 백성은 ‘주님의 백성’ (문자적으로는 ‘그의 백성’ [*τῷ λαῷ αὐτοῦ*], 68절의 *κύριος ὁ θεός τοῦ Ἰσραήλ* 참조)으로 묘사되고, 이어지는 79절에서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 (*τοῖς ἐν σκότει καὶ σκιᾷ θανάτου καθημένοις*)로 규정된다. 그러나 이들은 종국에 평강의 길로 인도될 것이다.

칠십인역은 *ἀνατολή*를 ‘가지/씩’을 뜻하는 7P2를 옮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매번 다윗의 가지를 지칭한다(렘 23:5; 숙 3:8; 6:12, 사 60:3도 참조). 이 용어의 용례가 어떠하든지 간에 78절은 68절의 함의를 반복하고 있다.²⁸⁾ 따라서 본 단락에서 백성은 하나님께 돌보심의 대상이지만 속량과 죄 사함으로 인한 구원이 필요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 (*οἱ ἐν σκότει καὶ σκιᾷ θανάτου καθημένοι*)이다. 하나님은 이들을 방문하셨으며, 그들을 위하여 구원의 뿌를 다윗의 집에 일으키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을 향한 긍휼을 보이신 것이다(69, 78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향후 예수의 취임 설교에서 인용된

27) John Nolland, *Luke 1-9:20*, Word Biblical Commentary 35A(Texas: Word Books, 1989), 86.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단어가 7P2를 번역하기 위한 종교적인 의미로만 사용되었으며, 성서 외적인 헬라 문헌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다메섹 문서 1:7-11에서는 히브리어 7P2가 하나님이 유사한 ‘방문’을 통해 의의 교사를 일으켰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IX*, 383.

28) 이 용어가 메시아적 타이틀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다. 구약의 일부 본문에서는 ‘다윗의 가지(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씩이 빛을 비추다’라는 모티프는 누가복음 1장만의 독특한 표현이다. 보다 상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John Nolland, *Luke 1-9:20*, 90;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IX*, 387을 보라.

이사야 61장 1절의 묘사와 내용적으로 맥을 같이 하는데, 이는 세례 요한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전하게 될 대상인 ‘백성’이 바로 예수 사역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할 것이다.

이어지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와 관련하여 ‘백성’이 재차 언급되고 있다. 2장 10절에 따르면 천사들이 전한 소식은 ‘온 백성에게(παντὶ τῷ λαῷ)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여기에서도 백성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받을 대상으로 언급된다. 나아가서 이들은 14절의 천사들의 찬송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ἀνθρώποι εὐδοκίας)로 달리 표현된다. 14절의 ἀνθρώποι εὐδοκίας는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men of good will)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people whom he[God] favors)이다.²⁹⁾ 여기서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호의와 구원 사역의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탄생 기사에서 ‘백성’은 시므온의 찬송에 다시 등장하는데, 31절에서 ‘주님의 구원’(τὸ σωτήριόν σου)이라고 언급된 예수의 탄생, 또는 예수 자신은 ‘만민을 위해서’(κατὰ πρόσωπον πάντων τῶν λαῶν) 준비된 것으로,³⁰⁾ 32절에서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δόξα λαοῦ σου Ἰσραήλ)이라고 찬송된다. 흥미로운 것은 누가가 이 구절에서 ‘백성’의 외연을 이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31절의 ‘백성’은 칠십인역 이사야 52장 10절의 영향을 받아 ‘모든 나라들’에 상응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면(행 4:25 이하 참조),³¹⁾ 32절의 ‘백성’은 ‘이스라엘’과 동일시되고 있는 것이다(1:68, 77 참조).³²⁾ 이어지는 34절

29)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IX*, 411; John Nolland, *Luke 1-9:20*, 109.

30) 세례 요한이 준비된 백성을 ‘준비시키듯이’(1:17, ἐτοιμάσαι), 주의 구원도 ‘준비된 것’(ἡτοιμασας)이다.

31) 이와는 달리 본문의 λαός를 LXX의 ἐθνῶν(gentiles)의 반영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히브리어 גוים(nations)의 번역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John Nolland, *Luke 1-9:20*, 120을 보라.

32) John Nolland, *Luke 1-9:20*, 106-7.

에서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 (πολλῶν ἐν τῷ Ἰσραήλ)을 예수 사역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이들을 ‘홍합’과 ‘괘합’과 ‘비방합’이라는 범주로 세분화한다. 그러므로 예수 사역의 대상이 되는 ‘백성’의 실질적 외연은 모든 민족 전체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시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백성’은 이방 민족의 일부와 이스라엘의 일부를 아우르는 집단이다(38절의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πάσιν τοῖς προσδεχομένοις λύτρωσιν Ἱερουσαλήμ]도 참조).

요약하자면 탄생기사에서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들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시키는 세례 요한의 사역의 대상이자, 요한을 앞서 보내셔서 당신의 길을 준비하게 하신 주님의 구원과 긍휼의 대상이다. 이들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으나, 결국 평강의 길로 인도될 자들이다(79). 아울러 이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받는 대상이자 하나님의 호의의 당사자들로서 ‘주의 구원’의 수혜자들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약속과는 별도로 이들의 구체적인 외연이나 성격은 아직 제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독자들은 ‘백성’의 구체적인 모습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채, 단지 ‘백성’이 향후 전개될 하나님의 ‘돌보심’의 대상이라는 점만 파악할 수 있을 따름이다.

나. 세례 요한과 백성(3장)

세례 요한의 선포와 세례에 관해 보도하는 3장에서 ‘백성’은 15, 18, 21절에서 세 번 등장한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누가가 세례 요한의 설교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무리들’ (ὄχλος)과 ‘백성’ (λαός)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7절부터 시작되는 세례 요한의 비판은 ‘무리들’을 향해 있고 세례 요한의 경고를 들은 ‘무리들’은 ‘무엇을 하여야 할지’ (10절, τί οὖν ποιήσωμεν) 묻는다(행 2:37의 τί ποιήσωμεν도 참조). 7절에서 이들은 ‘독사의 자식들’로 불리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멸망에 이

를 수 있다(9절)는 경고와 위협을 받는다. 이와는 달리 15절의 ‘백성’은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προσδοκῶντος τοῦ λαοῦ)이다. 18절에서는 이들이 요한에게서 ‘권고를 받고 좋은 소식을 듣는 자들’로 묘사된다. 이들은 7절이나 10절의 ‘무리들’을 지칭하기 위한 또 다른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1:33, 68, 77; 2:10, 32 등)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자들이다.³³⁾ 나아가 21절에서는 백성이 예수와 함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자들로 소개된다.³⁴⁾ 앞선 7절에서 세례를 받으러 나아온 자들은 기실 ‘무리들’이었지만 이어지는 서사에서 이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16절의 세례의 대상도 ‘백성’이다). 그러나 21절에서 ‘백성들’은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는다. 이러한 묘사는 백성과 예수의 유사성(similarity)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무엇보다 세례 기사가 시작되는 종속절(ἐγένετο δὲ ἐν τῷ βαπτισθῆναι ἅπαντα τὸν λαόν)은 이 단락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백성들’과 예수와의 연대를 강조하는 것이다. 세례라는 의식적 행동(ritual act)에 동참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지향성을 공유한다.³⁵⁾ 앞선 1장 16절 이하와 77절에서 제시된 세례 요한의 사명(백성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고, 죄 사함을 위한 구원을 전하는 것)은 3장 3절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βάπτισμα μετανοίας εἰς ἄφεσιν ἁμαρτιῶν)로

33) John Nolland, *Luke 1-9:20*, 150.

34) 21절의 ‘백성’을 앞에서 언급된 모든 무리들(7, 10, 12, 14)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15절에서 새롭게 언급되는 백성들의 관심사는 이전의 세례 요한의 설교와 내용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에 대한 백성들의 기대와 기다림은 바로 이전에 ‘무리들을 향해’ 제시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윤리적 설교와 상관없는 종말론적인 주제에 관한 것이다.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IX*, 471.

35) Joel B. Green, *The Gospel of Luke*, 185.

구체화되고, ‘백성들’이 이에 응답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듯 백성들은 세례에 동참한 예수와 ‘유사성’(similarity)을 보여 주는 동시에 ‘무리들’과는 조금씩 ‘대조’(contrast)를 보여 준다.

‘백성’에 대한 언급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15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을 ‘모든 사람’(διαλογιζομένων πάντων)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16절에서도 사도 요한의 답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세례와 향후에 이루어질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으라는 초청을 받고 있는 것이다.³⁶⁾ 15절과 16절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은 백성과 그들의 지도자를 포함하는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서 이 단계까지는 백성과 지도자들 간에 별다른 구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³⁷⁾ 그러나 서사가 진행되면서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들과 침례하게 구별된다(아래의 “성전에서의 예수와 백성”에 관한 논의 참조).

다. 갈릴리에서의 예수와 백성(6-7장)

예수의 세례 시에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백성’들은 이른바 ‘평지설교’(the sermon on the plain)에서 다시 등장한다. 이 단락에서 백성들은 평지설교의 청중들로 언급된다.³⁸⁾ 17절에서 백성들은 평지설교가 시작되기 전

36) Joel B. Green, *The Gospel of Luke*, 180.

37)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IX*, 483.

38) 엘리스(E. Eerle Ellis)는 6장 17-49절을 ‘great sermon’이라는 제하에 한 단락으로 구획한다. E. Eerle Ellis, *The Gospel of Luke,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1981), 111. 피츠마이어(Joseph A. Fitzmyer) 역시 6장 12-49절을 ‘the preaching of Jesus’이라는 제하에 한 단락으로 구획한다.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IX*, 137. 학자마다 평지설교와 관련된 단락 구분에서 의견을 달리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누가복음 6장 20-49절까지의 설교를 ‘평지설교’라고 구획하는 데 동의하지만, 6장 12-19절이나 17-19절을 ‘제자들을 향한 설교’라는 제하에 평지설교와 연결시키기도 하고, 별도로 다루기도 한다. Joel B. Green, *The Gospel of Luke*, 260; John Nolland, *Luke 1-9:20*, 273; E. Schweizer,

에 설교를 시작하기 위해 제자들의 무리와 함께 평지에 선 예수와 같이 언급된다. 이들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도의 해안으로부터 온 자들”로서 이는 2장 10절과 31절의 약속을 상기시킨다. 또한 이 백성들은 18절에서 “그[예수]의 말씀도 듣고 그들의 병을 고침 받기 위해서 왔다” (*οἱ ἦλθον ἀκούσαι αὐτοῦ καὶ ἰαθῆναι ἀπὸ τῶν νόσων αὐτῶν*)고 묘사된다. 그러므로 이들은 20절에서 청중으로 언급되고 있는 제자들과 더불어 평지설교의 청중들이다. 이러한 점은 평지설교를 다 마쳤다고 진술되는 7장 1절에서 재차 확인된다. 7장 1절에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들려주던 말씀을 마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던 설교의 말씀을 마친다. 자료의 배열이나 편집적인 손길 유무와 상관없이, 누가의 서사에 따르면 6장 20절부터 시작되어 49절에서 종결된 예수의 말씀은 ‘백성들의 경청을 지향하고’ (*εἰς τὰς ἀκοάς τοῦ λαοῦ*)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본 단락에서 ‘백성’은 6장 12절 이하에서 ‘사도’로 택하심을 받은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가 구성하기를 원했던 공동체의 지위와 실천 사항들을 전해 들은 직접적인 청중이자 초청과 도전의 말씀을 공유한 ‘예비 추종자’ (prospective followers)가 된다.³⁹⁾ 예수와 백성들과의 유대성은 이어지는 7장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7장 11절 이하에서 서술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사에서 이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 이적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것’ (16절, *ἐπεσκέψατο ὁ θεὸς τὸν λαὸν αὐτοῦ*)으로 평가한다. 이는 1장 68절의 사가랴의 예언을 상기시킨다. 1장 68절에서 사가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방문하시] 속량하셨다”고 찬송하고 있는데, 긍휼과 은혜로 자신의 백성을 방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의 이적적인 능력

The Good News according to Luke, trans. David E. Green (Atlanta: John Knox Press, 1984), 114; I. Howard Marshall, *Commentary on Luke*,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ns Publishing Co., 1978, 1995), 241.

39) Joel B. Green, *The Gospel of Luke*, 260-61.

을 통하여 구현된 것이다. 그러나 백성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직접적인 수혜자로만 언급되는 것이 아니다. 이어지는 7장 29절에서 ‘백성’은 “세리들과 함께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βαπτισθέντες τὸ βάπτισμα Ἰωάννου)고 묘사되는데, 이러한 백성의 모습은 세례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30절, τὴν βουλήν τοῦ θεοῦ ἠθέτησαν)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과 첨예한 대립을 보여 준다. 백성들은 단순한 은혜의 수혜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과 방문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자들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갈릴리에서의 예수의 사역에 관한 서사가 진행되면서 호의적인 입장에서 출발하여 점차 예수와 갈등을 빚어 가는 ‘무리들’의 캐릭터와 좋은 ‘대조’(contrast)를 이룬다(6:46-49; 8:21; 9:23-27, 57-62; 11:14-36 등 참조).⁴⁰⁾

아울러 하나님의 방문에 대한 언급은 아마도 누가 자신의 독특한 용법이라고 여겨지는데(1:68, 78; 7:16), 이 구절들이 보여 주는 기질(ethos)은 전적으로 유대적인 것이다. 누가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하심으로서의 예수의 사역을 유대적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⁴¹⁾ 이는 누가 서사에서 ‘백성’이라는 범주가 단순히 중립적인 청중들이 아니라, 칠십인역에 익숙했던 독자들에게 구약의 전통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돌보심과 속량을 이루어갈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⁴²⁾

40) 텐네힐의 분석에 따르면 예수는 여러 말씀들과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을 행하는 것과 엄격한 제자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누가 서사가 진행되면서 ‘무리들’은 이러한 예수의 가르침과 점차 긴장관계를 이룬다. Robert C. Tannehill, *The Narrative Unity of Luke-Acts*, 143-66.

41) John Nolland, *Luke 1-9:20*, 323.

42) 그러나 이는 명시적으로 드러나거나 철저하게 표명되는 것은 아니다. 1장 10절, 21절, 8장 43절이나 9장 13절에 나오는 ‘백성’에 대한 언급은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무리/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라.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수와 백성(18-21장)

이른바 ‘여행사화’(travel narrative)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주된 내용을 이루는 긴 여행 단락에서 가르침의 주된 대상이 ‘제자들’이었다면(10:23; 11:1; 12:1, 8, 22; 14:26, 16:1; 17:1; 18:1 등),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가르침의 주된 대상은 ‘백성’들이다. 이 단락에서 백성은 여리고성의 맹인을 고쳐 주는 장면(18:35-43)에서부터 재차 등장하는데, 이 이적의 핵심이 ‘치유’가 아니라 ‘보고 따름’(18:43)에 있다는 점을 기억할 때,⁴³⁾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 ‘백성’은 단순히 맹인의 치유만을 놀라워한 것이 아니라, 그의 ‘깨달음과 따름’에도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백성들의 이러한 태도는 34절에서 묘사되고 있는 제자들의 태도와 분명한 대조를 보여 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응하게 하기 위함”(18:31)이라고 밝힌 예수는 곧 이어 인자의 수난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제자들 자신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αὐτοὶ οὐδὲν τούτων συνῆκαν). 그러나 이어지는 맹인 치유에서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해서 여행하고 있는’(37절, *παρέρχεται*) 예수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그가 눈을 뜬 후 예수를 따르는 것(*ἠκολούθει*, 9:21 이하 참조)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백성들은 예수를 간접적으로나마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19장 47절과 48절, 20장 9절, 19절, 26절, 45절, 21장 38절에서 백성은 공히 예수의 말씀을 듣는 직접적인 청중이자, 그 말씀에 반대하는 백성의 지도자들과 대조를 이루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백성들은 단락 전체에서 매우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⁴⁴⁾ 이는 여행사화에서

43)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X-XXIV*, The Anchor Bible 28B(New York: Doubleday, 1985), 1214; Joel B. Green, *The Gospel of Luke*, 665.

44) John Nolland, *Luke 18:35-24:53*, Word Biblical Commentary 35C(Texas: Word Books, 1993), 1002.

보여 주었던 제자들의 역할을 대체한 느낌마저 갖게 한다(20:45 참조). 예수에 대한 백성의 지도자들의 태도가 점점 극으로 치달고(19:47; 20:2, 19, 26 등), 수난 예고에 대한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이후 입성 준비 차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과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서 잠깐 언급될 뿐, 20장 45절을 제외한다면 입성 이후부터 마지막 만찬과 겐셋마네에서의 기도 장면에 이르기까지 서사에서 모습을 감추고 있는데 반해,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지도자들과 대조를 보이면서 예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본 단락에서 백성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19:48, *ἐξεκρέματο αὐτοῦ ἀκούω*), 그들을 향한 예수의 '가르침을 받으며' (20:1, *διδάσκοντος αὐτοῦ τὸν λαὸν ἐν τῷ ἱερῷ*),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며' (20:6, *πεπεισμένος γὰρ ἐκστὶν Ἰωάννην προφήτην εἶναι*), '비유 말씀의 대상이 되고' (20:9, *πρὸς τὸν λαὸν λέγειν τὴν παραβολήν*), 지도자들이 두려워하여 '예수를 해하지 못하는 이유' (20:19, 26, *ἐφοβήθησαν τὸν λαόν*)가 된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제자들과 더불어 '말씀을 듣고' (20:45, *ἀκούοντος δὲ παντὸς τοῦ λαοῦ εἶπεν τοῖς μαθηταῖς*),⁴⁵⁾ 말씀들 듣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성전을 찾는' (21:38, *πᾶς ὁ λαὸς ὄρθριζεν πρὸς αὐτὸν ἐν τῷ ἱερῷ ἀκούειν αὐτοῦ*) 자들이다. 본 단락에서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예수와 깊이 유대관계를 맺고 있으며, 동시에 예수를 지지하는(support) 인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1장 23절에 나타나는 백성에 대한 언급은 향후 백성의 태도 변화를 암시하기에 충분하다. 23절에서 누가의 예수는 그 때에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21장 20-24절은 19장 41-44절에서 전술된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의 얘가를 떠오르게 한다. 예수는 그 얘가에서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한다"고 애통해 하는데, '평

45) 누가의 편집적 수정에 주목하라. 누가는 백성들이 제자들과 함께 이 경고의 말씀들을 들은 것으로 마가의 본문을 바꾸었다.

화에 관한 일'이란 이전 38절의 백성들의 환호성('하늘에는 평화' [ἐν οὐρανῷ εἰρήνη])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⁴⁶⁾ 더 이전의 2장 10절의 천사들의 찬송('땅에는 평화' [ἐπὶ γῆς εἰρήνη])을 상기시킨다. 뿐만 아니라 '평화에 관한 일이 숨겨졌다'는 41절의 표현은 44절에서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한다고 달리 표현된다. '보살핌을 받는 날' (τὸν καιρὸν τῆς ἐπισκοπῆς σου)이란 '너의 방문의 때(즉 너를 방문하는 때)'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칠십인역 예레미야 6장 15절의 ἐν καιρῷ ἐπισκοπῆς αὐτῶν('그들의 방문의 때')을 반영할 수도 있다.⁴⁷⁾ 그러나 이는 오히려 이전 서사의 하나님의 방문에 대한 언급들(1:68, 78; 7:16)을 떠올리게 하며, 따라서 이 모든 표현들은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종결을 향해 치닫고 있는 예수의 사역 전체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⁴⁸⁾

결국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의 애가는 예수의 삶과 사역을 통해 구현된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문을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한 비탄과 안타까움의 표현이며, 예수는 이들이 종국에 하나님의 방문을 거부함으로써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21장 20절 이하의 단락에서는 동일한 경고가 반복되면서 23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진다. 예루살렘 입성 이후 줄곧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을 경청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방문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결국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경고는 이후 서사에서 백성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를 미리 암시하는 일종의 복선과 같다고 할 것이다.

46) John Nolland, *Luke 18:35-24:53*, 932.

47)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X-XXIV*, 1259.

48) Joel B. Green, *The Gospel of Luke*, 690; Howard Marshall, *Commentary on Luke*, 719; John Nolland, *Luke 18:35-24:53*, 932.

마. 수난 받는 예수와 백성(22-23장)

21장 23절에서 미리 암시된 백성의 태도는 22장 1절부터 전개되는 예수의 수난과 십자가 처형에서 극적인 변화를 거치게 된다. 이 단락에서 백성은 22장 2절, 66절, 23장 5절, 13절, 14절, 27절, 35절에서 총 7회 언급된다. 22절에서는 이전 단락에서와 마찬가지로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해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로 묘사되고 있지만,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공모하여 예수를 공회에서 정죄하자 산헤드린의 모든 구성원들(23:1, 문자적으로는 ‘그들의 모든 모임이’, *ἀπαν τὸ πλῆθος αὐτῶν*)⁴⁹⁾ 이에 동조하게 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더욱 강성해지자(23:5a) 급기야 백성들도 이 무리에 동조하기 시작한다(23:13).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백성을 소동하게 하고(23:5b, *ἀνασείει τὸν λαόν*), 미혹하게 하는 자(23:14, *ἀποστρέφοντα τὸν λαόν*)’라고 정죄하지만 기실 백성을 소동케 하고 미혹하는 자들은 지도자들 자신이며, 백성들은 결국 그들의 미혹에 소리를 지르며 ‘소동하게 된다’(23:18, *ἀνέκραγον*, 21, *ἐπεφώνουν*). ‘몰려와 예수의 말씀을 듣던 무리’(5:1, *τὸν ὄχλον ἐπικεῖσθαι*)가 서사가 진행되면서 서서히 예수의 말씀과 진의를 헤아리지 못하는 자들로 변질되어 간 것처럼, 백성들 역시 무리들과 합세한 후 ‘큰 목소리로 몰려들어’(23:23, *ἐπέκειντο φωναῖς μεγάλαις*)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재촉하면서 극단적인 ‘반대’(opposition)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의 태도는 백성의 지도자들이나 관리들처럼 끝까지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로 묘사되어 종결되지 않는다. 바로 이어지는 27절에서 백성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과 함께 예수를 따르는 자들(*ἤκολούθει δὲ αὐτῷ πολὺ πλῆθος τοῦ λαοῦ*)로 소개된다. 비록 ‘따르다’라는 단어가 제자로서의 모습을 묘사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49)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X-XXIV*, 1474.

는 없지만, 백성은 이미 이전 서사에서 그들을 특징짓던 반목(antagonism)으로부터 극적으로 벗어난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⁵⁰⁾ 그리고 이어지는 35절에서 백성은 비웃는 관리들이나 희롱하는 군인들과는 ‘대조’를 이루면서 서서 광경을 쳐다보는(θεωρῶν) 자들로 담담하게 묘사된다. 이는 시편 22편 8-9절(LXX 21:8b)의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라는 표현을 떠올리게 하지만,⁵¹⁾ 관리들과의 대조를 통해 고정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⁵²⁾ 오히려 이는 수수방관하거나 비난하는 태도가 아니라 “서사의 이 단계에서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분명하게 분리되는” 태도로서,⁵³⁾ 가슴을 치며 슬피하는 무리들의 태도와 동일한 태도이다(48절).

예수의 재판에서 극적인 태도 변화를 보였던 백성들은 십자가 처형 장면에서 이르러 재차 극적인 재역전의 모습을 보여 준다. 무엇보다 겿세마네 동산에서의 체포 이후 모습을 감춘 제자들과는 달리 재판 장면에서 예수의 반대편에 섰던 백성들은 십자가 처형이라는 서사의 절정에서 극적인 태도 전환을 보여 주게 되고, 이어지는 엠마오 도상에서의 이야기에서 마지막으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περὶ Ἰησοῦ τοῦ Ναζαρηνοῦ)이 바로 자신들 앞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방문’이었음을 재차 확인시켜 준다(24:19). 무엇보다 누가복음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된 ‘모든 백성’(παντὸς τοῦ λαοῦ)이라는 표현은 복음서 전반에서 매우 독특하게 사용된 누가의 용어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칠십인역의 용례를 따르고 있다.⁵⁴⁾

50) Joel B. Green, *The Gospel of Luke*, 815. 이와는 달리 피츠마이어는 Lucian의 *De morte Peregr.* 34를 인용하고 있는 클로스터만(E. Klostermann)의 의견을 소개하면서 백성들의 태도는 동정(sympathy)이 아니라, 호기심(curiosity)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X-XXIV*, 1497. 그러나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과 같은 집단에 속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으므로(23:27, *πολὸν πλῆθος τοῦ λαοῦ καὶ γυναικῶν*), 이러한 추측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51) Howard I. Marshall, *Commentary on Luke*, 868.

52)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X-XXIV*, 1504. 그러나 마샬은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 평가를 유보한다. Howard I. Marshall, *Commentary on Luke*, 869.

53) Joel B. Green, *The Gospel of Luke*, 820.

특히 나사렛 예수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ἐναντίον τοῦ θεοῦ) 이루어 졌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승인되고 지지되었다는 것을 암시 한다(1:6 참조).⁵⁵⁾ 누가의 서사가 백성 앞에서 이루어진 나사렛 예수의 사 역이 헛되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는 예수 자신의 설명(24:27)과 제자들의 회복으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은 누가 서사 전반에 걸쳐 제자에 버금갈 만 큼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되어 온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들’이라는 점을 암시한다고 할 것이다.

IV. 결론: 누가 서사에서 “동일시와 자기-비판 (self-criticism)”으로서의 ‘백성’의 기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누가복음 서사에서 ‘백성’이라는 등장인물은 분명 ‘무리’라는 등장인물과는 구분되는 일관된 정체성을 보여 준다. 이 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문의 직접적인 수혜자로 제시되면서, 일관되게 예수에게 호의적이며 그를 지지하는 범주로 제시된다. 예수에 대한 재판 장면에서 이르면 이들은 일시적으로 그들의 지도자들의 입장에 동조하기도 하지만, 이내 원래의 태도로 복귀하여 예수에 대한 동정을 표 명하는 자들로 그려진다. 1세기 독자들이 서사의 등장인물에 주목하여, 등 장인물들을 중심으로 서사를 이해하고 그 과정을 통해 ‘모방과 회피’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누가복음 서사의 백성들은 캐릭터가 누 적되어 가면서 처음에는 ‘동일시’의 과정을 거쳐 ‘모방’의 대상으로 기 능하다가 점차 ‘자기비판’이라는 ‘회피’의 대상으로도 인식되는 중요한 범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누가복음의 다른 등장인물들의 캐릭터를 함께 고려할 때

54)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X-XXIV*, 1217, 1564.

55) Howard I. Marshall, *Commentary on Luke*, 895.

더욱 분명해진다. 누가복음에서 제시되는 ‘백성’이라는 캐릭터가 그 자체만으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도 있으나, 우리는 ‘백성’이 누가복음 서사에서 예수, 제자, 무리, 지도자 등의 등장인물과 어울려 전체 서사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텐네힐이 잘 보여 준 바와 같이 누가복음의 제자들, 무리들, 지도자들은 모두 결국 예수의 반대자들로 제시된다.⁵⁶⁾ 그러므로 이러한 등장인물과 함께 제시되는 ‘백성’이라는 캐릭터는 그것이 보여 주는 일관된 긍정적 모습으로 인해, 다른 캐릭터들과 대조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다른 등장인물들이 예수와의 관계에서 점차 부정적인 면모를 보일 때, 이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등장하는 긍정적인 캐릭터인 ‘백성’은 분명 ‘회피’와 ‘자기비판’으로 인식되는 다른 캐릭터들과 참여한 대조를 이루게 되고, 독자들이 ‘모방’ 또는 ‘동일시’ 해야 할 일종의 ‘이군’(我軍)으로 읽혔을 것이다. 무엇보다 누가복음 서사에서 ‘백성’이라는 용어가 칠십인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용어의 용례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⁵⁷⁾ 칠십인역에 익숙했던 누가복음 독자들로 하여금 ‘백성’(λαός)이라는 용어로 지칭되는 범주의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호감을 갖게 했을 것이다. 여타의 모든 등장인물들(제자, 무리, 지도자 등)은 캐릭터가 변하든, 일관성을 보이든 간에 결국 예수를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자들로 묘사되지만, 누가복음 서사에서 묘사되는 ‘백성’은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직접적인 수혜자들로서 예수에 대해 적극적인 응답과 일관된 호의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텐네힐의 분석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준다.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의 어떤 긍정적인 특성들은 매력이 있기 때문에, 독자는 너무도 쉽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독자의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등장인물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될 것이다. 복음서를

56) Robert C. Tannehill, *The Narrative Unity of Luke-Acts*, 143-274.

57)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X-XXIV*, 1217, 1564.

처음 읽은 독자들 중 대다수가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그들은 아마도 가장 손쉽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이야기 내에서 예수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인물들과 자신들을 연계시켰을 것이다.⁵⁸⁾

따라서 이러한 긍정적인 캐릭터는 당대의 독자들에게 분명 ‘모방’ 해야 할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며, 동시에 이들의 일시적인 실패와 변절을 읽으면서 독자들이 견지해야 할 올바른 신앙적 태도를 위해 ‘회피’ 해야 할 인물로 이해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예수에 대한 본래의 동정적 태도, 또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과의 유사성(similarity)을 회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주를 위해 준비된 자들’ (*κυρίῳ λαὸν κατεσκευασμένον*, 1:17)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자기 동일시를 더욱 확고히 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서사에서 ‘백성’은 ‘모방과 회피’라는 독자의 내적 결단을 자극하는 일종의 ‘무언의 대화’를 통해 누가 의도적으로 제시하는 ‘모범 답안’ 가운데 하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 장성민 경북대학교(B.A.)를 나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Th.M.)에서 공부했다.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박사과정 신약학 전공 중에 있으며 본 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있다.

58) Robert C. Tannehill, “The Disciples in Mark: The Function of a Narrative Role”, 401. 강조는 필자의 것.